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4차 세션 , 요한 복음의 구조

© 2024 로버트 피터슨 및 테드 힐드브란트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요한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4차 세션, 요한 복음의 구조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자극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가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로 넘어가서, 그 큰 맥락 안에서 그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복음이 서론으로 시작한다는 데는 보편적인 동의가 있고, 꽤 좋은 동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에필로그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서론은 요한복음 1:1-18로, 요한복음의 많은 주제가 소개됩니다.

에필로그는 21:1-25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예수,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은 일, 그리고 예수가 베드로를 대하는 일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것과 같은 세 번의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서론 1-18, 1장 1-18, 에필로그 21:1-25, 표적의 책 1:19-12:50, 영광의 책 13:1-20:31. 이런 중단을 정당화해야 하니 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1:1이 시작점입니다. 1:18과 1:19 사이에는 끊김이 있습니다. 1:18은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를 알렸습니다. 1:19,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입니다. 거기에는 끊임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1장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증인 주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일부, 서론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론은 서론이 될 수 있고,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주제를 증언하거나, 서론만 있을 수 있고, 1:19에서 징조의 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저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징조의 책은 1:19 또는 21에서 시작합니다.

1:19라고 할게요. 21은 셋째 날이라고 하니까 요한은 날짜를 세고 있었죠. 징조의 책이 21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지표입니다. 징조의 책이 12일 이후에 끝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3 :1은 큰 것입니다. 12장은 이렇게 끝나고,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 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3.1, 유월절 전,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청중 분석을 통해 우리는 표징의 책과 영광의 책을 구별하게 됩니다.

표징의 책,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표징과 설교의 청중은 세상, 특히 그가 있었던 유대인 세상이고, 영광의 책의 청중은 세상이 아닙니다.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I Am Sayings, 아니, 표징을 추적하면, 2장과 11장 사이에 일곱 표징이 모여 있습니다. 12장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장 구분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2장과 11장 전에 일곱 번째 표징이 있습니다.

20장, 예수의 부활까지는 더 이상 표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표적이 가리키는 현실이거나 표적이 가리키는 위대한 표적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일곱 표적이 표징의 책에 모여 있고 요한복음 20장까지 표적이 없다는 것은 영광의 책이 13:1

에서 시작해서 이 경우 11장이나 12장 이후에 끊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이 점에서 청중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12:37과 20:30과 31의 진술은 평행하며, 요한복음의 두 부분을 나타냅니다. 제가 전에 암시했듯이, 그것들은 1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1장, 서문, 서문이라고 해야 할 텐데, 서문은 우리를 요한복음의 큰 부분으로 안내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온다고 말한 후, 9절, 10절에서 그는 세상에 있었고, 참 빛이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3절로 돌아가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왔고,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9, 10, 11절에서 빛의 관점에서 성육신한 후, 빛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는 자신이 만든 세상에 계셨고, 창조주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영생을 가져오기 위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ESV는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좋지만, 저는 11장에서 자신의 첫 번째 사용에 대한 추천이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사용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네 아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날부터, 그, 존은 그녀, 메리를 그의 집으로,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과 11장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이며,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요한복음 19장, 여자여, 네 아들을 보라. 19:26, 제자에게 이르되, 네 어머니를 보라. 그 때부터 제자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같은 표현이 1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왔고,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의 집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집,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주석에서 인정하듯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첫 번째 반응은 부정적인 거부입니다(요한복음 1:10, 11). 두 번째 반응은 다행히도 12, 13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pisteuo*, 즉 믿음을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의 이름을 믿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 그를 믿는 것은 그를 믿는 것과 다릅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믿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를 구세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미 1:10과 11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1:12와 13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대조는 요한 복음의 개요입니다.

표징의 책이 12:37에 이 말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들보다 먼저 많은 표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20:30과 31과 함께 그 말을 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해보고 유사점과 대조점을 살펴보자. 둘 다 예수가 표적을 행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 둘 다 예수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

둘 다 믿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 불신과 믿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12:37과 대조적으로, 먼저 나오는 20:30과 31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표적, 12:37, 비록 그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12:37, 그들 앞에서, 예수,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 예수, 많은 표적, 제자들의 면전에서.

앞에는 세상, 특히 유대인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12:30, 이 책에 있는 모든 표적이 아닙니다. 요한은 선택적이었지만, 이것들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12:37, 그가 그들 앞에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 이 책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37은 20:30과 31이 12:37의 대위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신으로 이끄는 표적, 예수의 표적, 예수가 제자들 앞에서 믿음과 영생으로 이끄는 표적.

따라서 요한은 서론에서 이미 1절, 10절에서 13절까지 복음의 개요를 나타냅니다. 10절과 11절의 부정적 반응은 표적의 책을 예고하고, 그 반응은 12:37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실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절, 12절, 13절의 긍정적 반응은 20:30절과 31절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복음의 본문인 서론은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그리고 에필로그로 나뉩니다. 영광의 책은 예수의 부활 때까지 어떤 표적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에필로그에서 또 다른 표징이 있는데, 여기에는 작별 담화, 12, 13에서 16까지가 포함됩니다. 17장에서 예수의 위대한 대제사장 기도, 18장에서 체포, 19, 20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의 부활입니다. 다른 청중과 다른 주제, 지금은 표징이 아니라, 예수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일어날 일, 진리의 영과 생명의 영, 세상에서의 박해에 대한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을 위한, 그 자신을 위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13:1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들어가고, 예수는 세상에 문을 닫았습니다. 17장에서 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선교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신이 그들의 말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의 말을,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론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풍부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겠지만, 더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헬레니즘 철학, 신비 종교, 영지주의가 아니라 성경의 첫 구절을 언급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존의 배경이다. 물론, 그는 헬레니즘 세계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사실,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세계에서 많은 추측의 주제였다.

하지만 그의 로고스 개념은 필로나 신비주의나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즉,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창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인격화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말씀은 인격이며, 그 말씀은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세 번째 구절. 창세기와 매우 비슷해서 처음에 한 구절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칠십인역,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시험 인용문의 정확한 단어이며,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단어 개념은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전치사는 한 분을 말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 불리는 분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은 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컬트들은 우리에게 신을 번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이라는 단어가 기사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을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글썄요, 습관을 통한 일관성 때문입니다. 6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어떤 번역도 그것이 관사 없이 같은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참되고 살아 계신 신을 가리킵니다. 12절은 어때요? 그는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신의 자녀가 될 권리를 주었습니다. 아니, 아니, 절대 아닙니다. 신의 자녀.

왜 누군가가 1절에서 신을 번역할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이전의 신학적 헌신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잠깐만요. 그것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말씀, 빛,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입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거짓된 믿음은 그가 누구인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내가 구원을 위해 그를 신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나는 변태, 그저 변태, 그저 사람, 아니면 천사가 내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줄 것이라고 믿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원성 교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 앞서 말했듯이, 주로 요한은 성령을 오순절 이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신학의 기능이 아니라 체계적 신학의 기능으로, 이원성 교리의 기초가 여기에 있으며 , 요한의 가르침, 특히 바울의 가르침의 총만함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됩니다.

모든 것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을 긍정하고 부정적인 것을 부정함으로써 완전한 창조를 긍정하는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과 히브리서와 히브리서 1장에서 다른 전략을 사용하지만, 매번 여기서서는 포괄적인 언어, 부정, 긍정적인 것의 긍정,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불리는 아들,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자는 창세기 1장과 1장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4절, 영원한 생명의 위치. 조에(Zoe)는 항상 4번째 복음서에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신이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말씀이었는데, 말씀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말씀이 대신합니다.

이미 독자, 유대인 독자, 회당에 참석하는 이방인, 소위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말씀은 토라의 성경 첫 구절에서 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서 공명하며 , 모든 것을 창조하신 덕분에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인간에게 비추는 빛, 객관적 소유격이었습니다. 즉 , 요한복음 1:4는 일반 계시를 가르칩니다. 인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잘 받지 못했습니다.

빛은 신, 창조물을 계속 드러내는 어둠 속에서 빛나지만 어둠은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번역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어둠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빛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짓밟으려 하고, 빛을 끄려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결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도 요한의 제사에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한 복음에서 공관복음서와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 요르단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요한입니다.

증인이라는 주제는, 앞서 말했듯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끝까지, 그리고 특히 5장, 그리고 나중에 8장에서 전개되는데, 요한복음 7절에 소개됩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이 빛 안에서 그를 통해 믿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습니다 .

그는 빛이 아니었지만 빛을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선구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40장과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따르면, 실례합니다.

하느님은 엘리야의 권능으로 온 선구자, 세례자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처럼 차려입고 사막 식단을 먹으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었나요? 그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느님의 뜨거운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하느님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0장 41절, 세례자 요한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미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착각했습니다.

요한은 몇 번이나 요한, 사도가 말하길, 그는 빛이 아니었다고 했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저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는 늘어나야 합니다, 3장.

세례자 요한의 잘못으로 세례자 요한 숭배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는 빛이 아니었지만 빛을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가리키는 자입니다. 그는 증인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구절은 다양하게 번역되었고, 때로는 매우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킹 제임스 버전은 참 빛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모든 아기에게 보편적인 예방적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웨슬리안 개념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확실히, 그 전통은 그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구절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존중합니다. 저의 전 학생인 Brian은 성이 없지만, 제 격려에 따라 예방적 은혜에 대한 웨슬리안 관점에 대한 책을 썼고 실제로 두 사람에게 바쳤고, 저는 그 중 한 명이었고, 제 교수인 Robert Peterson은 저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격려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Brian.

잘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이름이 곧 여기로 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절의 번역은 두 가지 이유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 오는 참 빛이어야 하며, 오는 것과 함께 있는 우회적인 지시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오, 그가 세상에 오실 때, 참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런 다음, 10절에서 어색합니다.

그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즉, 9절은 성육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기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참 빛이 세상에 온 것이요, 이것이 10절의 배경이 됩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NASB, ESV, NIV는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된 빛. 그게 무슨 뜻인가? 어떤 종류의 a인가? 나는 기독교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의 진실, 즉 신이 로고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의 성육신 속의 참 빛이 그가 접촉하는 인간을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철학적 원리가 아니라 역사적 진술입니다. 참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줍니다.

그는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오셨지만 그의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장 10절과 11절에 이미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요한이 대명사를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 한, 그리고 성경에서 그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무오하지 않습니다.

대신 , 아들이 사람을 입양한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아버지가 사람을 입양합니다. 다시 시도해 봅시다.

그를 영접한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것이 아버지에게로 바뀌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공유합니다. 그것은 요한 복음에서만 독특할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요한 복음에서만 독특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큰 요점은 아니야. 누가 태어났는가, 세 번이나 말했잖아, 인간의 행위나 교활함이나 계획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야.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이 주제는 요한 복음 3장에서 확장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야겠습니다.

10과 11이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12와 13은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표징의 책은 불신으로 끝나며, 1:10과 11에 해당합니다.

영광의 책은 복음의 목적, 즉 예수의 표적, 믿음, 그리고 영생으로 끝납니다. 20:30, 31. 그것은 1:12, 13과 일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가 말했듯 이, 그것은 단지 육체를 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되어 일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장막을 치고, 이중적 의미를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로 가득합니다. 이미 영광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네 번째 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성서의 개념, *hesed v'emet*,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 괄호 안에, 요한은 그를 증거했다. 세례자 요한은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한 분, 내 뒤에 오시고 내 앞에 서시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앞에 계셨기 때문이다.

번역을 매끄럽게 해야 하지만 문자 그대로는,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사람입니다. 나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횡설수설처럼 들립니다. 존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독자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나보다 뒤에 오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나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나를 앞지릅니다.

제 뒤에 오는 사람은 제 출생보다 6개월 늦게 제 앞에 있습니다. 그는 저를 앞지릅니다. 그는 저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아는 것보다 더 잘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영원한 말씀, 빛, 아들의 선재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넷째 복음서에는 영원,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사에 대한 말이 안 됩니다. 대천사 미카엘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충만함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적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 대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서 아들, 말씀, 빛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한 은혜와 진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지는 은혜와 진리와 비교하면 단지 불법으로 보일 뿐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영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진술인가? 땅에 있는 아들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은유적 진술인가? 아버지에게 깊이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적어도 후자이다. 전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둘 다일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을 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학생들에게 존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중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즉각적인 맥락과 그 장의 더 완전한 맥락, 그리고 요한복음의 절반과 요한복음 전체의 더 완전한 맥락을 매우 밀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해석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는 Grant Osborne의 좋은 책인 *The Hermeneutical Spiral*에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일련의 동심원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맥락이 확장됨에 따라 원은 더 커집니다.

가장 바깥쪽 원은 성경 전체입니다. 그 안의 한 칸은 구약성서이고, 그 다음에는 신약성서, 이 경우에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많은 것을 반복하지는 않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 5,000명을 먹인 일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언가를 반복할 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글, 확실히 복음서와 서신들, 그리고 아마도 계시록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요한 계시록의 저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약 학자들에게 맡깁니다. 저는 요한 복음을 재미있게 읽는 겸손한 체계 신학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더 작은 원입니다. 그랜트 오스본이 The Hermeneutical Spiral에서 보여주듯이, 원이 줄어들수록 그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이 경우 서문은 여전히 더 작은 원입니다.

그리고, 1:18을 하게 될 것 같아요. 1:18이 가장 작은 원이에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원은 16에서 18까지 1개예요.

그것은 조금 더 큰 것과 그 주변을 둘러싼 것, 아마도 어느 쪽이든, 119가 새로운 추진을 시작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 쪽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원이 확장됨에 따라 영향력은 여전히 있지만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때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1, 야곱의 사다리는 구약성서에서 맨 끝에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본문에서 구약성서가 실제로 언급된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서론은 별로 좋은 작품이 아닙니다. 내용이 가득합니다. 요한 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는 멋진 그림과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표징의 책은 이미 1장에서 예수에 대한 이러한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다시 증언하는데, 특히 1:29에서 아름다운 진술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죽음에 대한 요한의 견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레온 모리스가 그의 책, 십자가의 사도적 설교에서 말했듯이, 세례자 요한이 모든 희생, 희생 제도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희생을 성취하십니다. 그는 모든 희생을 대체합니다.

그는 궁극적인 희생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다른 언어로 매우 분명하게 말했듯이, 그것은 다른 모든 희생의 성취이자 대체입니다. 그리고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인을 보게 됩니다.

CH Dodd는 요한복음에 대한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1:7과 8이 요한복음 1:19에서 42까지를 요약한다고 매우 통찰력 있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7입니다. 요한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1:19~28입니다. 요한은 거듭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의 이해에 따르면, 그는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요한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요아킴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실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지만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증거자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믿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다음 날도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지나갈 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두 제자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요한을 떠났고, 요한은 기뻐했다. 위에서 온 자가 더 크다.

나는 그저 그의 친구일 뿐이야 그는 신랑이야 그는 교회의 구세주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저 그의 친구일 뿐이야

저는 그것이 CH Dodd가 그의 네 번째 복음서의 주제에 대한 좋은 책에서 통찰력 있는 일련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요한복음 1:19-28). 그는 빛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왔습니다(요한복음 1:29-34).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빛을 믿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35~42.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표적의 책은 1:19에서 시작하여, 증언 부분부터 1장 끝까지,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 빌립, 안드레, 베드로, 나다니엘의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2장과 1절은 일곱 가지 표징 중 첫 번째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11장 끝까지 계속되는데, 나사로가 부활하여 일곱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2장; 장교의 아들이 치유됨, 4장; 절름발이가 치유됨, 5장; 5,000명이 배불리 먹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다의 폭풍에서 구출하심  
물 위를 걸으시다 6, 눈먼 사람을 고치시다, 그는 더 높은 판돈을 걸으셨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9, 가장 어렵습니다. 나사로는 11장에서 부활합니다. 그것은 표적의 책이며 표적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표적입니다.

학자들은 그것들을 어떤 종류의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징조, 즉 재앙과 올바르게 연관시켰는데, 그것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야훼를 참되고 살아 계신 신으로 드러냈습니다. 다시 한번, 징조들은 태양의 신을 가리켰고, 태양은 징조들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첫 번째 표징과 일곱 번째 표징에서 태양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첫 번째 표징, 요한복음에서 11장까지.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징이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11장.

그래서 요한이 하는 일은 첫 번째 표징과 일곱 번째 표징에서 영광을 예수의 표징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표징에서, 특히 위대한 표징, 죽음에서의 부활에서 그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11장의 아름다운 진술입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4장 4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39,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38 돌을 치우세요. 39 마르다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주님, 이쯤 되면 냄새가 날 겁니다.

그는 며칠 동안 죽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것입니다. 죽음과 죄의 인간적인 악취는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와 대조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징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의

제자들은 11장에서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옮겨주세요, 주님, 냄새가 날 겁니다.

참 좋고, 정직하고, 현실적인 진술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악취가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미 죄와 죽음의 악취를 극복하셨고, 은유적으로는 그의 친구 나사로를 시체의 부패의 영향 없이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런 식으로 일곱 번째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첫 번째와 일곱 번째 표적은 모든 표적이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하지 않았지만, 영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이 주제를 다루고 요한복음의 목적과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와 그의 요한 신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